

이우환 화백 이름 건 미술관 오늘 부산서 개관

모노하(物派) 창시자인 이우환 화백(79)의 이름을 건 개인 미술관인 '이우환 공간(Space Lee Ufan)'이 10일 부산에 문을 연다.

부산시가 47억원을 들여 해운대구 우동 부산시립미술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1400㎡) 규모로 지은 '이우환 공간'은 2010년 일본 나오시마에 개관한 '이우환 미술관'에 이은 세계 두번째 미술관으로, 작가가 직접 건물 설계와 인테리어, 작품 배치, 사무 집기와 가구 디자인 등을 맡았다. 이곳에는 그림 없이 거대한 캔버스만으로 이뤄진 작품 '물(物)과 언어', 깨진 유리 위에 큰 돌이 놓인 '관계항

-지각과 현상' 등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제작된 회화와 설치 작품 23점이 전시된다. 작품 가액은 200억원 상당이다. 이우환 작가는 "나오시마의 이우환 미술관이 건축 위주라면 이우환 공간은 전시 부문을 강조했다"면서 "작품만이 아니라 작품과 공간의 관계에 유념해 관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우환 공간'은 부산시가 미술관 건립의 진정성, 부산과의 인연 등을 내세워 작가를 설득한 끝에 2013년 건립이 결정됐다. 이 화백은 "개인 미술관에 거부감이 있어 사양해오다 부산시와 시민들의 열성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공



이우환 화백이 9일 '이우환 공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화백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경남중을 나와 서울대 회화과를 다니다 1956년 일본으로 유학, 일본 전위예술운동인 모노하를 창시하고 주도했다.

한윤정 선임기자 yjhan@kyunghyang.com